

보도시점 2025. 2. 4.(화) 09:40 배포 2025. 2. 4.(화) 09:10

## 최상목 권한대행,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점검하고 우리기업 지원방안을 논의

-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모니터링 -
- 우리 업계의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화)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제6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조치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가 1개월간 유예되었으나 금번 관세 부과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중심으로 진출기업 간담회 등 협의체를 통해 전개 양상, 주요국 대응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황 진전에 대응한 비상수출대책 마련과 함께 미국 신정부 인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 및 이와 관련한 유턴기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업계의 애로해소를 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 <총괄>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재완 (044-215-7610)
		담당자	사무관 이동휘 (hui1219@korea.kr)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심승현 (044-215-7670)
		담당자	사무관 김상형 (sanghyeong@korea.kr) 사무관 홍가람 (ddallokx2@korea.kr)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북미경제외교과	책임자	과 장 김동윤 (02-2100-7684)
		담당자	서기관 채유승 (yschae@mofa.go.kr)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영만 (044-203-5620)
		담당자	사무관 신상훈 (sanghoon319@korea.kr)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650)
		담당자	사무관 정지선 (jiunjeong@korea.kr)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방진아 (044-200-2178)
		담당자	서기관 성인영 (inyoungs@korea.kr)